

칠레, 2009년 경기부양 특별대책

- 칠레 Michelle Bachelet 대통령은 지난 1월초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 등을 완화하고 2009년 3%대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U\$40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 특별대책을 발표

경기부양 특별대책 주요내용

- 유동성 확대
 - 유동성 부족으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하던 17%의 법인세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%를 인하하고 대기업의 경우는 7%를 인하하여, 중소기업은 2%의 법인세만을, 대기업은 10%의 법인세만을 각각 납부토록 조세를 대폭 경감
 -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자금 대출, 추심업체 (Factoring Bancario) 및 신용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진흥청을 통하여 1억 미불을 지원
 - 산업진흥청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보증 확대

□ 재정지출 확대

- 7억 미불 상당의 공공분야 투자 확대
- 칠레구리공사(CODELCO)의 구리광산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10억 미불의 재정 지출 확대
- 각종거래세로서 부과하던 인지세 폐지
- 341개 시.군에 공공자금 지원 확대
- 칠레 남부지역의 목재생산 및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및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

□ 고용확대

- 기업이 18-24세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, 기업이 지급한 임금의 20%와 사회 보장 기타 지출의 10%를 정부가 보전하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고용 확대 정책 실시
-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경우 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확대

□ 저소득 가구 지원

- 약 3,700,000명에 해당하는 주재국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1인당 40,000페소를 2009년 3월 1회에 한하여 지급
-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임시직,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확대

- 칠레 정부는 세계금융위기 이후, '08년 9월말 U\$50억 달러의 유동성 자금을 금융시장에 공급한데 이어, '08년 10월 중순 U\$8.5억 달러와 '09년 1월초 U\$11.5억 달러를 기 공급
- 금번의 칠레 국민총생산의 2.8%에 해당하는 U\$40억 달러 상당의 상기 경기부양 특별대책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100,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, 국내 경기가 상당부분 활성화 되는 등 '09년 GDP 성장률이 2%~3%대에 이를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

<사우파울루 사무소 제공>